

## 의미적 '전제'와 서반아어 동사의 법에 대한 화용적 분석

- 제한적 관계문을 중심으로 -

김 은 경 (서울대, 서어학)

### 0. 서 론

제한적 관계절에서의 법의 교호와 선행사의 의미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선행사를 제한하는 요소(determinante), 특히 관사(el, un, ø)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정의하려는 시도이거나, 아니면 제한적 관계절을 구성하는 동사의 법의 의미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두가지의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선행사를 구성하는 명사구(sintagma nominal: SN)의 세가지 의미 자질 - especificidad, definitud, existencia -에 관한 본격적인 정의와 해석을 내린 것이 Rivero(1975)의 연구이다.

당시 Rivero(1975:45-47)<sup>1)</sup>가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1991년도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Rivero가 발표한 명사구의 의미 자질과 제한적 관계문의 법의 교호에 관한 연구는 모두 세가지인데(1975, 1977, 1979), 1975년의 연구("Referential Properties of Spanish Noun Phrases," *Language* 51, pp.32-48)가 최초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서반아어의 정명사구와 부정명사구에 대한 연구("Definite and indefinite NP's in Spanish", 1974, *Linguistic Studies in Romance Languages*, ed. by J. Campbell, pp.189-202,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가 있었지만, 관계문의 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1975년의 연구 내용은 1977년 Rojas("Referenciality in Spanish Noun Phrase", *Language* 53, pp.61-69)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비판되었고, 이에 반발한 Rivero는 같은 해인 1977년에 Rojas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연구논문("Specificity and Existence: A Reply", *Language* 53, 1, pp.70-85, en versión española, "Especificidad y existencia", (1990) *Indicativo y subjuntivo*, ed. por I. Bosque, Madrid, Taurus Universitaria, pp.261-279)을 내놓았으며, 1979년에는 1975년과 1977년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통합적이고 최종적인 이론으로서 제시하였다("Referencia y especificidad",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del español*, 1979, Madrid, Cátedra, pp.124-161).

(i) 명사구의 *definitud*(*definido/indefinido*)와 무관하게 명사구의 *especificidad*의 여부가 존재하며, *especificidad*은 제한적 관계질의 법의 교호와 관련성을 갖는다(IND:*específico* = SUBJ:*inespecífico*).

(ii) Donnellan(1966)이 제시하는 정명사구(SSNN *definidos*)의 화용적 구분(*referencial/atributivo*)이 서반아어에서는 통사적, 의미적 근거로 뒷받침되며, 그 구분의 근거는 명사구의 *especificidad*의 여부이다.

(iii) 명사구의 존재(*existencia*) 여부는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자질이며, 명사구의 *definitud*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Rojas(1977:61)의 반론은 (iv) Rivero가 주장하는 직설법과 SSNN *específicos*, 접속법과 SSNN *inespecíficos*의 대응관계가 정명사구에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미흡하고, (v) 법의 교호에 근거한 *especificidad*의 자질이 Donnellan의 *referencial/atributivo*의 구분<sup>2)</sup>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vi) 명사구의 존재(*existencia*)는 명사구의 *definitud*과는 무관하며,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의 교호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Rojas의 반대 주장에 대해 Rivero(1977,1979)는 앞서 나열한 내용만을 부분적으로 철회하였을 뿐 (i), (iii)에 대해서는 자신의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한적 관계질에 출현하는 명사구의 세가지 자질과 관련된 Rivero와 Rojas의 서로 상반된 판단을 상세히 분석하여, Rivero가 주장하는

2) Donnellan(1966, 1978)에 의한 정명사구의 *referencial/atributivo* 구분은 일종의 화용적 구분으로서 전적으로 화자의 의도에 의존하는 것이다. Rivero(1975)는 Donnellan의 이러한 구분이 서반아어에 있어서는 통사적 근거를 갖고 있고, 이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의 교호 (Ref.:IND/ Atrib.:SUBJ)로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referencial/específico* 및 *atributivo/inespecífico*의 상관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학자들은 *referencial/atributivo*의 구분이 *referente conocido/referente no conocido*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간주하기도 하였지만, Donnellan 자신이 지시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화자는 정명사구를 *referencial*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논박한다. 한편, Kripke(1977)는 Donnellan이 제시한 정명사구의 두가지 용법을 화자의 지시와 의미적 지시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을 암시하며, *referencial*한 용법은 두가지의 지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atributivo*한 용법은 두가지의 지시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로 간주한다.(Donnellan, K.,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pp.281-304 ; 1978, "Speakers Reference, Descriptions and Anaphora", *Syntax and Semantics* 9, COLE, P. ed. pp.47-68; Kripke, Saul, 1977, "Speaker's Reference and Semantic Referenc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Philosophy of Language*, Univ. of Minnesota. pp.6-27 참조.)

(i), (ii)와 Rojas의 (vi)이 서반아어에서는 부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SSNN의 세가지 자질 - especificidad, definitud, existencia -이 Rivero의 주장처럼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 내지는 통합적으로 관계문의 범의 교호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Especificidad y modo

Rivero(1975,1977,1979)의 주장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especificidad이라는 자질이 정명사구(SSNN definidos)와 부정명사구(SSNN indefinidos)에 공히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específico/inespecífico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제한적 관계절의 범의 교호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 (1) a. El asesino de Smith está loco.(Rivero, 1979:133)  
 b. El que asesinó a Smith está loco.(*Ibid.*)  
 c. El que asesinara a Smith está loco.(*Ibid.*)
  
- (2) a.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rubia.(Rivero, 1979:135)  
 b.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que es rubia.(*Ibid.*)  
 c.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que sea rubia.  
 (*Ibid.*)

Rivero(1975:35, 1979:133)에 따르면 (1a)의 주어 위치의 명사구 el asesinato de Smith는 서반아어에서 두가지의 서로 다른 표층구조인 el que asesinó a Smith (1b)와 el que asesinara a Smith (1c)로 변형될 수 있으며, (1b)의 직설법 관계절은 (1a)에서 언급된 명사구에 específico한 자질을 부여하고, (1c)의 접속법 관계절은 (1b)와는 반대로 명사구에 inespecífico한 자질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1b)와 (1c)의 정명사구의 específico/inespecífico의 구분은 Donnellan(1966)이 말하는 referencial /atributivo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본다.

Especificidad이라는 자질은 정명사구(SSNN definidos)만의 독립적인 자질이 아니어서 Rivero(1975:36, 1979:135)는 (2a)의 부정명사구 una chica rubia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부정명사구는 모두 inespecífico하다는 인식과는 반대로, (2b)처럼 직설법의 제한적 관계절을 취하는 경우 específico

한 자질을 갖게 된다고 보며, 다시 한번 especificidad과 법의 교호가 서로 긴밀한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Rojas(1977:62)는 정명사구가 específico하며 referencial하다고 간주한 Rivero의 (1b)의 예문을 아래의 (3a), (3b)로 확대시켜, (1b)는 atributivo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 (3) a. El que asesinó a Smith, a quien todos conocemos, está loco  
(Ref.).(Rojas, 1977:62)
- b. El que asesinó a Smith, quienquiera que sea, está loco  
(Atrib.).(Ibid.)

(3b)는 의심의 여지없이 정문이고, 또 정명사구에 해당하는 el que는 quienquiera que sea로 확대가능한 이유로 의미상 atributivo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Rivero가 주장하는 específico인 정명사구는 referencial에 해당한다는 이론은 근거를 상실하며, 결과적으로 직설법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정명사구가 반드시 referencial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신빙성을 잃게 된다. 또한,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명사구의 especificidad 여부가 과연 법의 교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Rivero의 해석에 따르면, (1a)가 (3a)및 (3b)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3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b)의 직설법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정명사구가 inespecífico라는 모순에 봉착하고, 이는 (1c)와 especificidad 여부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1b)와 (1c)의 정명사구의 의미적 구분은 especificidad의 유무와 관련된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절의 법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의미 차이는 (1b)와 (1c)에 대한 화용적 전제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 (4) a. Yo creo que hay un individuo que asesinó a Smith.
- b. Hay un individuo que no sé si asesinó a Smith.

(4a)와 (4b)에서 볼 수 있듯이, 정명사구 el que의 실질적 존재 (existencia)에 대해서는 (1b)와 (1c)가 일치하고 있으나, (1b)에서는 그가 Smith를 살인한 자라는 것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개입되고, (1c)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유보되고 있을 뿐이다<sup>3)</sup>. 결과적으로, especificidad 여부가 정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판단도 가능해 진다.

한편, 예문 (2)의 부정명사구의 especificidad에 대해서도 Rivero는 정명사구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는 (2b)와 (2c)의 의미적 대립이 Rivero가 주장하는 especificidad의 유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existencia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 (5) a.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que es rubia, \*si es que existe alguna.
- b.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que sea rubia, si es que existe alguna.

(5a)가 비문인 까닭은 부정명사구의 존재를 직설법 관계절로서 전제한 후에 si 가정문을 첨가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전제를 다시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5b)에서는 si 가정문의 첨가가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명사구의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부정명사구를 대상으로 구태여 especificidad의 유무를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3) Keenan(1976)이 언급한 바 있는 주어의 위치(posición del sujeto)는 일반적으로 지시적 위치(posición referencial)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1c)의 el que asesinará a Smith está loco와 같은 구문은 그 문법성에 다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ra형의 어원적 의미가 현대서반아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신문기사와 같은 문체에서는 직설법 과거(pretérito del indicativo)로 자주 사용된다는 Staubach(1946)의 의견을 참조한다면, 문장은 실제로 직설법 과거의 구문으로서 문법성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문장을 이루는 주동사가 Smith를 죽인 자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법에 대한 화자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확인 여부가 유보적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시물의 구체적인 존재는 인지된 것이므로 문장의 문법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Keenan, E., *Toward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Subject and Topic*, 1976, Academic Press; Staubach, C. H., "Current Variations in the Past Indicative Uses of the -ra form", 1946, *Hisp.* 29, pp.355-362 참조.)

4) Rivero의 1975, 1977 및 1979년의 연구에서 변함없이 반복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명사구의 존재(existencia)의 의미가 명사구의 especificidad과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Rivero에 따르면 명사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명사구의 especificidad이 결정되므로,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 명사구에도 especificidad의 유무가 판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명사구의 존재 여부는 곧 명사구가 지칭하는 지시물(referente)의 존재 여부와 동일한 개념으로 especificidad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 즉 지시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a)의 부정명사구 *una chica rubia*는 부정명사구를 일반적으로 총칭적 지시(*referencia genérica*)와 구체적 지시(*referencia específica*)의 두 종류로 구분할 때<sup>5)</sup>, 총칭적 지시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 (6) Si existe una chica que (es, sea) rubia,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ella.

예문 (2a)는 (6)과 동일한 해석을 취할 수 있고,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명사구는 *específico*라기보다는 *genérico*로 간주된다. 그 결과, (2a)의 두가지 해석에 해당하는 (2b)와 (2c)는 각각 직설법과 접속법 관계절의 수식으로 *genérico*한 원래의 자질이 변질되어 (2b)에서 *específico*한 자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2b)와 (2c)는 어디까지나 부정명사구를 수식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전제 여부에 대한 두가지의 가능한 해석일 뿐이다. 따라서, 부정명사구에 있어서도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이 *especificidad*의 자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은 신빙성이 없다.

## 2. Dos criterios en cuanto a la especificidad

앞서 1장에서 논의된 명사구의 *especificidad*이라는 자질은 개념적으로 불분명하고 혼동의 소지가 있어, 먼저 과연 이 자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Rivero(1975)가 애초에 명사구의 지시적 자질에 대해 언급했을 때, *especificidad*에 대한 그의 입장은 명사구의 *específico/inespecífico*의 대립은 Donnellan(1966)의 *referencial/atributivo* 구분과 일치하며, 수식하는 제한적 관계절의 *indicativo/subjuntivo* 구분과도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대립에 대해 서반아어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sup>6)</sup>,

5) Bustos, E., *Pragmática del español*, UNED, Madrid, 1986, p.75 참조.

6) Rivero(1975:39-40)에 의하면, 서반아어의 정명사구 및 부정명사구의 *específico/inespecífico*의 대립은 다음과 같은 통사적 근거를 갖는다.

(i) 하나의 명사구가 동시에 직설법과 접속법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a. \*Me interesa (la, una) guía que tiene mapa y que esté escrita en español.

(ii) 누적된 관계절이 동일한 지시의미를 취할 때는 동일한 법을 사용한다.

b. \*Cómprame (los, unos) pasteles que sean de chocolate que tienen guindas.

(iii) 관계절이 축소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사구의 *específico/inespecífico*의 의미

그중 흥미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 (7) a. Quiero casarme con (la, una) chica rubia, la cual es francesa.(Rivero, 1975:40)  
 b. Quiero casarme con (la, una) chica que es (IND) rubia, la cual es francesa.(Específico, *Ibid*)  
 c.\*Quiero casarme con (la, una) chica que sea (SUBJ) rubia, la cual es francesa.(Inespecífico, *Ibid*)

(7a)는 (2a)와 유사한 문장이나 비제한적 관계절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7b)와 같은 변형은 가능하나 (7c)의 변형은 비문을 생성한다. Rivero는 (7c)가 비문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8)이 비문인 까닭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8) \*Me interesa (la, una) guía que tiene (IND) mapas y que esté (SUBJ) escrita en español.(Rivero, 1975:39)

즉, 하나의 선행사가 동시에 직설법과 접속법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통사적 제약이 존재하고, 이는 하나의 선행사가 동시에 específico와 inespecífico한 자질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Rivero가 especificidad을 definitud과 무관하며 법의 교호와 관련된 문맥적 자질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ivero(1975:41)는 명사구의 específico/inespecífico 대립은 부정(negación), 미래(futuro) 및 불투명(modal u opaco) 문맥 이외에도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 (9) a. (Un, El) comentario que (esté suscitando, suscitara)(SUBJ)

---

구분은 둘 중 하나의 해석만을 취한다.

- c. Quiere casarse (la, una) muchacha que sea rubia y con pecas. (inespecífico)  
 d. Quiere casarse (la, una) muchacha que es rubia y con pecas. (específico)  
 그러나, 이와 같은 통사적 근거들도 específico=IND/inespecífico=SUBJ의 상관관계가 전제된 후에나 근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접속법의 화용적 전제란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중립적 태도(actitud neutral sobre el valor veritativo de la proposición)를 말하며, 또 그러한 전제가 반드시 inespecífico한 의미로서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Picasso queda fielmente reflejado en primera plana (Inesp.).  
(Rivero, 1975:41)

- b. (Un, El) comentario que suscitó (IND) Picasso queda fielmente reflejado en primera plana (Esp.).(Ibid)

그러나, Rojas(1977:64)는 (10)에서 보는 것처럼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사 *ahora*의 삽입을 통해 (9a)의 문법성에 있어 Rivero와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 (10) (Un, El) comentario que ahora (\*suscite, \*esté suscitando)  
Picasso queda fielmente reflejado en primera plana.(Rojas,  
1977:64)

즉, 관계절의 접속법 형태는 문제의 평론(*el, un comentario*)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화자의 유보적 태도를 반영하고,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주문장의 동사의 의미와 상충되기 때문에 (9a)는 비문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Rivero(1975)가 *especificidad*을 통사적, 의미적 자질로 간주한 반면, Rojas(1977)는 이를 자질로 간주하여 존재 의미(*valor existencial*)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점이다. 이와 같은 Rojas의 견해에 대해, Rivero(1977:72)는 다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especificidad*은 존재 의미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 (11) El libro que próximamente (a. escriba, b. escribiré) será todavía mejor.

(11)에서 명사구가 직설법 관계절의 수식을 받느냐 접속법 관계절의 수식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존재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고, 결국 관계절의 법의 교호는 *especificidad*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Rivero의 1979년 연구에서도 되풀이 되며 다음의 (12)와 같은 예문을 통해 재확인된다.<sup>7)</sup>

7) Leonetti(1990:55)는 (12)의 예문에서 정명사구가 *específico*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평론(*comentario concreto*)이며, 접속법의 존재는 정명사구의 *inespecificidad*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문 평론에 관해 화자가 자신의 의견, 판단, 평가를 상대방에게 뚜렷히 밝히지 않으려는 화자



(12) Bueno, el comentario que sea, pero ahí está publicado. Así que léelo.(Rivero, 1979:139)

(11)과 (12)를 통해 재확인된 바대로 Rivero가 사용하는 especificidad 자질은 결국 명사구가 표현하는 지시물의 구체적 특징(características del referente)을 지칭하는 의미 자질이며, específico/inespecífico의 구분은 그러한 지시물의 특질에 대한 화자의 인지 여부(conocimiento/desconocimiento; certidumbre/incertidumbre; relevancia/irrelevancia)에 근거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Rivero의 견해는 especificidad을 정의함에 있어 지시물(referente)의 존재 여부(presuposición o implicación existencial)에 근거하는 논리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고(Rojas), 오히려 본질적으로 지시물의 인지 여부에 근거하는 화용적 기준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결국, Rivero에게 있어 específico한 자질은 인지된 지시물(referente conocido)과 관련되며, inespecífico한 자질은 인지되지 않은 지시물(referente no conocido)과 관련될 뿐이다.

우리는 especificidad에 대한, 두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에 접하고 있는데 (Rojas/Rivero: criterio lógico/pragmático), 이 두가지 정의는 실제 사용에 있어 경우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 가령, 예문 (11)과 같은 미래시제의 문맥에 논리적 기준을 적용하면, 정명사구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는 무관하게 inespecífico가 되지만, Rivero가 제시하는 화용적 기준에 의거하면, (11a)와 (11b)는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각 inespecífico, específico로 해석된다.<sup>9)</sup>

의 태도를 반영할 뿐이라고 간주한다.(Leonetti, Jungl, M.,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Universitaria, Madrid, 1990, p.55-56 참조.)

8) Especificidad을 지시물의 인지 여부(referente conocido/no conocido)에 의거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판단의 주체(operador intensional)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한 문장의 해석도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

(i) María cree que Oscar quiere casarse con una rubia.

이 문장에서, una rubia에 대한 인지 여부는 Oscar에게만 제한될 수도 있고(a), María와 Oscar 둘에게 제한될 수도 있고(b), 또한, 두 사람과 화자를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c):

a. María cree que (∃x) (x es una rubia & Oscar quiere casarse con x).

b. (∃x) (x es una rubia & María cree que Oscar quiere casarse con x).

c. (∃x) (x es una rubia & yo digo que María cree que Oscar quiere casarse con x).

이와 같은 세가지 가능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시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especificidad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Leonetti, *op. cit.*, pp.51-52 참조.)

또한, 예문 (12)처럼 현재시제로 이루어진 문맥에서도, 논리적 기준에 따르면, 정명사구 *el comentario*는 그 존재가 전제되기 때문에(*ahí está publicado*) 접속법 관계절임에도 불구하고 *específico*로 판단되지만, 화용적 기준을 적용하면 존재를 인정하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지시대상의 특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inespecífico*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1장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especificidad*이라는 자질을 관계절의 범의 교호와 관련된 현상으로 판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Rivero). Rivero(1979:149)는 예문 (11a)와 (11b)의 경우, 의미의 구분에 있어 아래의 예문 (13a) 및 (13b)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La torre que el Rey (a. construyera, b. construyó, había construido) se derrumbó.*

(11a), (12) 및 (13a)의 접속법이 과연 정명사구에 *inespecífico*한 자질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화자의 전제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 (14) a. *Yo creo que habrá un libro y no sé si lo escribiré.*  
 b. *Yo creo que hay un comentario y no sé si el comentario es ése.*  
 c. *Yo creo que hubo una torre y no sé si el rey la construyó.*

(14a), (14b), (14c)에서 보여지는, (11a), (12) 및 (13a)에 대한 화자의 전제는 정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문의 명제에 대한 화자의 중립적 태도(*actitud neutral o falta de compromiso*)를 반영할 뿐이지, 지시물의 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굳이 Rivero가 따르는 화용적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2) 및 (13a)는 각각 (14a)와 (14c)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지된 지시물(*referente conocido*)을 의미하기 때문에 Rivero의 판단

---

9) Rivero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especificidad*에 관해 수없이 언급했지만, 한번도 정확한 정의를 내린 적은 없다. 우리는 Rivero가 사용하는 문맥 또는 정황에 근거하여 그가 이를 지시물의 특질(*características del referente*) 또는 구체화의 정도(*grado de determinación*)에 대한 인지 여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짐작할 뿐이다.(Rivero, 1975, p.151 참조).

과는 달리 오히려 específico한 정명사구로 간주될 뿐이다.

즉, 화자의 태도는 comentario와 torre가 각각 어떤 것인지 확인을 유보하거나, 왕이 만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화자의 담화세계(universo del discurso)에서는 이미 인지된 지시물인 것이다. 따라서, Rivero는 especificidad에 관한 화용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동시에 Rivero가 언급해 온 especificidad이 관계절의 법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12)와 (13b)와 같은 구문에서 - 물론 다른 구문에서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 especificidad에 관한 두가지 판단 기준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두 기준 모두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3. Existencia, referencia y modo

앞서 1, 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관계절의 법의 교호는 especificidad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명사구의 존재 의미(valor existencial)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구의 존재 의미가 지시 의미(valor referencial)<sup>10</sup>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두 자질이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명사구의 존재 의미와 지시 의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5) a. Juan quiere pescar (un, el) pez que según él pesa cinco libras, y tal pez no existe.

b.\*Juan quiere pescar (un, el) pez que según mi opinión pesa cinco libras, y tal pez no existe.

10)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시 의미는 Donnellan의 referencial/ atributivo의 구분에서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즉, 지시(referencia)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 사용한 것으로 소위 명사구(sintagma nominal)와 대상(objetos)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할 뿐이다. 지시 의미(referencia)가 발화행위(acto de enunciación)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낱말과 사물의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인 denotación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Leonetti Jungl, M.,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Universitaria, Madrid, 1990, p.9 참조.)

(16) a. Juan bailará con (la, una) chica que tenga ojos azules, la cual no existe todavía.

b.\*Juan bailará con (la, una) chica que tiene ojos azules, la cual no existe todavía.

(15)와 (16)에 대한 Rivero(1979:143-144)의 견해에 따르면 명사구의 존재 의미(valor existencial)에 대해 문맥적으로 일관성 있는 (15a)와 (16a)는 정문이고, 그러한 일관성이 결여된 (15b)와 (16b)는 비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사구의 지시 의미와 존재 의미는 형태적으로 보충적 표현 ((15)의 según él, según mi opinión)이나 제한적 관계문의 동사가 표현하는 시제 의미(referencia temporal)<sup>11)</sup>를 통해서 제공되며, (15a)와 (16a)에서는 두 자질이 일치하고, (15b)와 (16b)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일치는 다음과 같은 과거 시제의 구문에서 더욱 명확하다고 판단한다.

(17) El libro que apareció ayer es todavía mejor.(Rivero, 1979:144)

그러나, 여기에서 Rivero가 이해하고 있는 지시 의미(valor referencial)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의미적 지시(referencia semántica)와 화자의 지시(referencia del hablante)를 혼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15a)와 (15b)의 문법성에 대한 판단은 전치사구(según él, según mi opinión)의 삽입을 통해서 지시문의 존재 여부를 화자의 지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16a)와 (16b)의 구분은 관계문의 동사의 형태(tenga, tiene)가 표현하는 의미적 지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의 관계문의 동사 형태가 의미하는 지시 내용, 특히 (16a)의 접속법 tenga의 지시 내용이 과연 명사구의 지시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Rivero가 주장하는대로 (16a)의 명사구의 존재 의미가 지시 의미와 일치한다면, tenga는 '비존재'(no existencial)를 의미하고 따라서 '비지시적'(no referencial)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16a)와 같이 담화의 범주가 전적으로 화자에게 의존하는 미래 구문에서는 존재 의미와 지시 의미가 비존재, 비지시로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11) Rojas(1977:67)는 (16a)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정명사구를 총칭적(genérico)으로 간주한다.

- Si existe una chica que tenga ojos azules, Juan bailará con ella.  
즉, 관계문은 지시문의 존재도 비존재도 의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ivero의 관점을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접속법 과거의 구문에서는 두 의미가 전혀 일치할 수 없다.

(18) El comentario que fuera, pero lo hizo el Rey y no el Ministro,  
¿de acuerdo? (Rivero, 1979:149)

(19) El que asesinara a Smith está loco. (*Ibid*)

Rivero가 (15)와 (16)에 적용한 판단 기준에 따른다면 (18)과 (19)에서 접속법 fuera와 asesinara는 수식하는 명사구를 비지시적(no referencial) 내지는 비존재적(no existencial)인 의미로 해석을 유도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Rivero(1979:147)는 두 문장의 명사구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Rivero가 사용하는 지시 의미(valor referencial)가 실질적으로는 화자의 지시를 지칭하고, 화자의 지시 내용은 존재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 화자의 담화 세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지시물을 의미하는 문맥적 여건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은, (15), (16), (18)을 통해 Rivero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가적인 문장(la cual no existe, lo hizo el rey 등)이나 주문장 동사의 지시 내용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sup>12)</sup>, 오히려 관계문의 동사형태가 내포하는 시제 의미에 의존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Rojas(1977,68)의 관점은 정명사와 부정명사구 모두 관계문의 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설법은 명사구의 존재 의미에 기여하고, 접속법은 비존재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서반아어의 실제 사용과는 전혀 다르다. Rojas의 주장대로라면, 앞서 나열한 예문 (18)과 (19)에서 명사구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따라서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과 (19)는 의심할 수 없는 정문이고, fuera와 asesinara는 접속법이 의미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중립적 태도(no sé si  $\alpha$ )와는 별개로 두 형태가 갖는 시제 의미가 Rojas의 견해와는 달리 수식하는 명사구에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Rojas(1977:66)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다음의 예문들도

12) Leonetti(1990: 60-74)는 명사구의 especificidad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a) 관계문에서의 범의 교호, (b) 직접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 a의 유무, (c) referentes de discurso를 이용한 검증, (d) cuál을 이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e) 존재에 대한 전제 여부를 알기 위한 바꾸어쓰기 방법(hay que x)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20) a. El libro que yo escribiera (el año pasado) me (creó, me está creando) dificultades.

b.\*El libro que yo escriba me (creó, está creando) dificultades.

(20a)가 정문이고 (20b)가 비문인 것은 Rojas가 주장하는 것처럼 (20a)의 escribiera가 용법상 직설법으로 사용되어서 주문장의 존재 의미와 일치되며, (20b)는 접속법 형태로 인해 문맥적으로 상반된 존재 의미를 내포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 (20)의 주문장의 시제가 내포하는 명사구의 존재 의미가 (20a)의 동사의 시제 의미와는 일치하지만 (20b)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sup>13)</sup>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20c)에서처럼 escriba를 직설법의 escribo로 대체하였을 때 정문이 되어야 하지만 주문장의 creó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20) c. El libro que yo escribo (\*creó, está creando) dificultades.

3장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자면, 명사구의 지시 의미는 결국 그 존재 의미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며, 명사구의 지시 의미 또는 존재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관계문의 동사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시제 의미라 할 수 있겠다.

13) 우리의 주장은 -ra형태가 어원적 의미인 직설법 과거로 쓰일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Staubach(1946)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콜롬비아에서는 일반 작가들이 자주 직설법 대과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신문기사 같은 언론출판물에서는 직설법 과거로 쓰이며, 특히 관계절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Rojas(1977)가 근거로 삼는 아르헨티나 서반어에서도 A. Alonso (1935)가 지적한 것처럼, -ra 형이 언론언어(lenguaje periodístico)에서 자주 직설법 과거로 쓰인다. 스페인에서도 갈리시아지방에서 어원적 의미인 직설법 대과거로의 사용이 자주 지적된다 (Gili Gaya, 1961; RAE, 1973). 즉, 우리의 관점도 (20a)의 escribiera가 어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Rojas의 판단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20b)가 비문인 것은 Rojas의 주장처럼 관계문의 동사가 접속법형태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문장의 동사와의 시제의 일치 원칙(consecutio temporum)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c)외에도 관계절의 주어가 화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법 과거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 El libro que él escribiera me (creó, está creando) dificultades.

더구나, 위 문장에서는 escribiera를 어원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4. Especificidad, existencia, definitud y mo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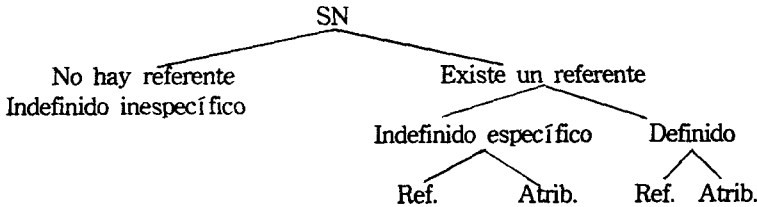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관계문의 법은 명사구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1장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Rivero의 일관된 주장은 관계문의 법은 명사구의 especificidad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직설법: específico = 접속법: inespecífico의 대응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고, 우리의 관점은 관계문의 화용적 전제를 통해서 위와 같은 대응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2장에서 especificidad은 두가지의 판단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시물의 인지 여부(referente conocido)에 근거하는 화용적 기준이 실제로 지시물의 존재 여부(presuposición existencial)에 근거하는 논리적 기준과 동일한 해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3장에서 지시 의미(valor referencial)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이 개념이 문맥상의 존재 의미와 일치하며, 지시물(referente)의 유무는 결국 그 존재 유무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sup>14)</sup>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명사구의 especificidad은 결국 명사구의 존재 의미에 의존하고 이는 다시 명사구의 지시 의미와 일치됨으로써, 형태적으로 명사구의 definitud에 집약되어 표현된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규명해야 할 작업은 명사구의 definitud과 관계문의 법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다.

- (22) a. Comparará la camisa que le gusta.
- b. Comparará la camisa que le guste.

14) Peterson(1976)과 Galmiche(1977)가 제시한 명사구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Donnellan의 Ref./Atrib. 구분은 정명사구 뿐만 아니라 específico한 부정명사구에도 가능하다(Leonetti, *op. cit.*, p.86 참조).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específico/inespecífico의 대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지시물이 존재하는 명사구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과 (22)의 정명사 구문은 수식하는 관계문에서 법의 교호를 허용하며, 이에 대한 Borrego(1985:121)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i) 정관사 *el*은 지시물의 *singularidad*을 의미한다.
- (ii) 직설법은 지시물의 구체적 존재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전제한다.
- (iii) 접속법은 지시물의 *singularidad*을 인지하고 있지만 화자가 이를 확인(*identificación*)할 수 없다.

Borrego의 해석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일단 접어 두고 (21)과 (22)의 정명사구를 모두 부정명사구로 대체하여 문법성을 살펴보자.

- (23) a. Dame un libro que estés leyendo.
- b. Dame un libro que estás leyendo.
  
- (24) a. Comprará una camisa que le gusta.
- b. Comprará una camisa que le guste.

(23)과 (24)에서 볼 수 있듯이, 정명사구를 부정명사구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도 관계문의 법의 교호는 아무런 문법적 제약이 없이 허용된다. 부정명사구로의 대체로 인해 생겨나는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Borrego의 견해는 부정관사 *un*의 사용으로 인해 정관사 *el*이 내포하는 지시물의 *singularidad*에 대한 전제(i)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Borrego의 해석 방법도 2장에서 논의한 Rivero의 *específico: indicativo = no específico: subjuntivo*라는 등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부정명사구로의 대체는 앞서 나열한 (i)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ii)와 (iii)도 다음과 같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iv) 직설법은 지시물이 하나 이상 존재하지만 화자가 인지가능하다 (*referente conocido*).
- (v) 접속법은 지시물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동시에 화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referente no conocido*).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명사구를 사용한 (21)과 (22)의 문장에



서는 명사구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지시물(referente concreto)이 법의 교호와 무관하게 전제되며, 법의 교호는 다만 지시물의 확인 여부(identificado/no identificado)에만 관여하지만, 부정명사구를 사용한 구문에서는 법의 교호가 지시물에 대한 화자의 인지 여부(referente conocido/no conocido)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화자의 지시물에 대한 인지 여부가 명사구의 especificidad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especificidad이 만약 관계문의 법의 교호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해도 문맥상 정명사 구문이 아닌 부정명사 구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부정명사 구문이라고 해서 모든 문맥이 especificidad에 근거하는 법의 교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Rivero가 제시하는 총칭적 문맥(contexto genérico)에서는 법의 교호가 명사구의 especificidad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25) a.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que es rubia.  
 b. A Juan le gustaría casarse con una chica que sea rubia.

물론, Rivero의 주장대로 (25a)와 (25b)의 경우에 específico/inespecífico의 대립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지시물의 인지 여부가 Juan의 담화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화자의 전제는 어차피 인지되지 않은 지시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총칭적 문맥에서는 법의 교호가 명사구의 especificidad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26) a. Una casa que es grande es difícil de calentar.  
 b. Una casa que sea grande es difícil de calentar.

- (27) a. Imaginemos un avión que se mueve a la velocidad del sonido.  
 b. Imaginemos un avión que se mueva a la velocidad del sonido.

(26) 및 (27)과 같은 문맥에서 나타나는 especificidad의 중화현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Ramírez(1986: 379-384)가 "subjuntivo de indeterminación" 및 "subjuntivo de clase"라는 명칭으로 분류하여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Kleiber(1984)는 específico/inespecífico의 대립이 necesitar, querer 등의 양상동사(verbo modal)가 이루는 불투명 문맥(contexto opaco)에서 관

제문이 no especificante한 경우에 잘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 바 있다.

- (28) a. Necesito preguntárselo a un estudiante que habla ruso.  
 b. Necesito preguntárselo a un estudiante que hable ruso.

(28)의 예문은 Kleiber의 견해와는 달리 부정명사구의 총칭적(genérico) 해석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especificidad이 증화될 수도 있다. 다음의 Manteca(1981:62)의 예문들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 (29) a. Una secretaria que sabe ruso busca empleo interesante.  
 b. Una secretaria que sepa ruso busca empleo interesante.

- (30) a. Un millonario que tiene yate necesita marineros para formar tripulación.  
 b. Un millonario que tenga yate necesita marineros para formar tripulación.

Manteca는 (29b)와 (30b)를 비문으로 간주하는데 부정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로서 지시적 위치(posición referencial)에 있기 때문에 접속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는 (29)와 (30)을 앞서 살펴본 총칭적 문맥으로 간주하여도 무관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자면, 명사구의 지시 의미와 존재 의미는 형태적으로 명사구의 definitud(definido/indefinido)으로 집약되어 표현되며, 명사구의 definitud은 수식하는 관계문과 제한적으로 상관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명사 구문에서는 관계문의 범의 교호가 지시물의 구체적인 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그와 같은 구체적 지시물의 확인 여부에만 관여하지만, 부정명사 구문에서는 범의 교호가 일반적으로 지시물의 인지 여부와 직접적 관계를 맺으며 이는 especificidad의 유무로서 판별되지만, 일부 총칭적 문맥(contexto genérico)에서는 증화된다고 볼 수 있다.

## 5. 결 론

우리가 이 글에서 처음에 제시한 목표는 명사구가 내포하는 세가지의 의미 자질 - especificidad, definitud, existencia -이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규명해보는 것이었으며, 우선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 이론인 Rivero(1975,1977,1979)와 Rojas(1977)의 연구 내용을 중심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Rivero가 제시하는 이론의 근간은 명사구의 세가지 의미 자질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고, 이중 핵심적인 especificidad은 제한적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esp.:IND = inesp.:SUBJ), 명사구의 존재 의미는 첨가문 및 동사의 형태와 같은 문맥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고 명사구의 형태적 definitud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Rojas의 의견은 명사구의 especificidad은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명사구의 존재 의미가 명사구의 definitud과는 무관하게 관계문의 법의 교호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1장에서 Rivero와 Rojas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especificidad과 법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정명사 구문에 있어서는 관계문의 화용적 전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Rivero를 비판하고 Rojas의 견해를 지지하였지만, 부정명사 구문에 있어서는 Rojas가 간과하고 있는 문맥상의 문제점(contexto genérico)을 근거로 하여 Rivero의 이론에 제한을 가하였다.

2장에서는 명사구의 세가지 의미자질중 법의 교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especificidad의 두가지 정의 (criterio lógico, criterio pragmático)를 상세히 논의함으로써, 지시물의 인지 여부(referente conocido/no conocido)에 근거하는 화용적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빚어진 Rivero의 especificidad에 관한 잘못된 구분을 지시물의 존재 여부(presuposición existencial)에 근거하는 논리적 기준의 적용으로 수정 보완했다.

3장에서는 명사구의 존재 의미 및 지시 의미와 관계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Rivero가 사용하는 지시개념이 의미적 지시와 화자의 지시를 혼동함으로써 명사구의 존재 의미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Rojas가 주장하는 존재 의미와 법의 교호의 상호 의존관계는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증명하였고,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문 동사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동사의 시제 의미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명사구의 definitud과 법 교호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

펴보았는데, 명사구의 *definitud*에는 명사구의 존재 의미 및 지시 의미가 집약되어 있으며, 관계문의 범의 교호와는 제한적으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즉, 정명사 구문에서는 확인 여부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부정명사 구문에서는 범의 교호가 일반적으로 지시문의 인지 여부(*referente conocido/no conocido*)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어 *especificidad*의 유무로써 판별되지만 일부의 문맥(*contexto genérico*)이 예외적인 경우를 형성함을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는 이 글에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며, 굳이 그러한 부분을 제시한다면, 지시적 의미에 관한 Donnellan의 구분 (*referencial/atributivo*)과 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문의 범과의 관계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Donnellan은 지시적 의미에 대한 구분을 주로 정명사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referencia/atribución*의 구분이 Donnellan이 전제하는 것처럼 화자의 의도(*intención del hablante*)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지시물을 내포하는 부정명사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확대될 경우에 이를 수식하는 관계문의 범의 교호가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lonso, Amado, 1935, *El problema de la lengua en América*, Madrid, Espasa-Calpe.
- Borrego, J., Asencio, J.G., y Prieto, E., 1985, *El subjuntivo; valores y usos*, Madrid, Sociedad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 Bustos, Eugenio, 1986, *Pragmática del español*, UNED, Madrid.
- Donnellan, Keith, 1977,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pp.281-304.
- Fernández Ramírez, Slavador, 1986, *Gramática española; El verbo y la oración*, ed. por I. Bosque, Arco/libros, Madrid.
- Gili Gaya, Samuel,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Bibliograf.
- Keenan, E.,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 Kleiber, G. 1984, "Remarques sur l'opposition relative restrictive /relative

- appositive et l'article indéfini un spécifique,"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22, pp.179-191.
- Kripke, Saul, 1977, "Speaker Reference and Semantic Referenc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T.E. Uehling Jr. and H. K.Wellstein, Univ. of Minnesota Press. pp.6-27.
- Leonetti Jungl, Manuel, 1990,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Universitaria, Madrid.
- Manteca Alonso-Cortés, Angel, 1981, *Gramática del subjuntivo*, Madrid, C átedra.
- Porto Dapena, J. A, 1991, *Del indicativo al subjuntivo*, Madrid, Arco/Libros.
- Real Academia Española,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Rivero, María Luisa, 1974, "Definite and Indefinite NP's in Spanish," *Linguistic Studies in Romance Languages*, ed. by J. Campbell,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 pp.189-202.
- \_\_\_\_\_ 1975, "Referential Properties of Spanish Noun Phrases," *Language*, 51, pp. 32-48.
- \_\_\_\_\_ 1977, "Specificity and Existence: A Reply," *Language*, 53, 1, pp.70-85, en versión española, "Especificidad y existencia", 1990, *Indicativo y subjuntivo*, ed. por I. Bosque, Madrid, Taurus Universitaria, pp.261-279.
- \_\_\_\_\_ 1979, "Referencia y especificidad,"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del español*, Madrid, Cátedra, pp.124-161.
- Rojas, Nelson, 1977, "Referentiality in Spanish Noun Phrases," *Languages*, 53, pp.61-69.
- Staubach, Charles N., 1946, "Current Variations in the Past Indicative Uses of the -ra forms," *Hispania*, 29, pp.355-362.

## Análisis pragmática de las variaciones del modo en las oraciones de relativo restrictivas

Kim, Un-Kyung

Lo que se pretende en este estudio es analizar cómo intervienen los tres rasgos semánticos - especificidad, definitud, existencia - de los SSNN en la alternancia modal en las oraciones de relativo restrictivas que los modifican haciendo una revisión exhaustiva de los estudios realizados por María Luisa Rivero(1975, 1977 y 1979) y Rojas(1977) que constituyen los principales fuentes de este tema.

La teoría de Rivero se basa en su creencia de que los anteriores tres rasgos de los sintagmas nominales son conceptos independientes entre sí y en especial, el llamado rasgo 'especificidad' tiene estrechas relaciones con la alternancia modal en las subordinadas restrictivas (específico:IND = inespecífico:SUBJ). Asimismo, ella cree que el valor existencial de los SSNN no tiene ninguna relación con su definitud y se determina por su contorno lingüístico(significado de expresiones añadidas, referencia temporal, etc.) Ante esta postura, Rojas insiste que el rasgo 'especificidad' no tiene ninguna relación con la alternancia modal y que el valor existencial de los sintagmas nominales es el factor determinante de la alternancia modal de las relativas que los modifican.

En el primer capítulo hemos revisado las posturas de Rivero y Rojas que son contradictorias entre sí respecto a las relaciones existentes entre el rasgo 'especificidad' y el modo de las relativas. Para las descripciones de los sintagmas nominales definidos hemos comprobado que con la aplicación de la presuposición pragmática del subjuntivo la postura de Rivero pierde fundamento, lo cual coincide, de cierta manera, con la visión de Rojas. Para las descripciones de los sintagmas nominales indefinidos, de lo que ni siquiera trató Rojas, hemos impuesto cierta restricción a la clasificación de Rivero enumerando algunos problemas contextuales

(contexto genérico) que habían sido desapercibidos por Rivero.

En el segundo capítulo hemos tratado exclusivamente el rasgo 'especificidad' que utilizaron Rivero y Rojas. Hemos percibido que Rivero utilizó este rasgo dependiendo del conocimiento del referente (criterio pragmático) mientras Rojas, dependiendo de la presuposición existencial del referente(criterio lógico). Por nuestra parte, hemos revisado la precisión con la que se utilizó este rasgo por los anteriores autores.

En el tercer capítulo hemos discutido las relaciones entre el valor existencial y el referencial de los sintagmas nominales y la alternancia modal de las relativas. Hemos llegado a saber que era muy confusa la exposición de Rivero al aplicar el concepto de referencia, ya que ella no distinguía la referencia semántica de la referencia del hablante. Por otro lado, hemos comprobado que la insistencia de Rojas de que el valor existencial de los SSNN depende de la alternancia modal de sus relativas no tiene fundamento y el factor determinante de la existencia en los SSNN es, más bien, la referencia temporal del verbo.

Por último, hemos revisado las relaciones entre la definitud de los SSNN y la alternancia modal y llegamos a la conclusión de que el valor existencial y el referencial de los SSNN se funden en la definitud de los SSNN que se correlaciona con la alternancia modal bajo algunas restricciones. Es decir, en las descripciones definidas la alternancia modal de las relativas sólo se relaciona con la identificación del referente conocido(identificado/no identificado), mientras que en las descripciones indefinidas la alternancia modal se relaciona en general con el conocimiento del referente(conocido/no conocido) excepto en algunos contextos(genéricos).